

침구경험방 간행 365주년 기념세미나

침의들의 경험의술 현재도 가치 충분

지난 6월 18일 한국언론학회 기자회견장에서 침구경험방 365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사회는 김호 교수(경인교대)가 맡았고 토론자로 손흥렬 회장(허준학회)과 손종양 상임이사(허임기념사업회)가 나섰다. 다음은 발표의 요지이다. <편집자 주>

주제 발표① 조선 시대 침의의 형성과 지위

전의감·혜민서에 침의 배속...내의원엔 침의청



이규근(중원문화재
연구원 책임연구원)

침과 뜸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침구의(鍼灸醫)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의 외과적 수술, 즉 대침(大鍼)으로 굵은 종기를 짜고 고름을 뽑

아내는 치종의(治腫醫)도 침의에 속한다. 또한 단방(單方)의 고약(膏藥) 등 약으로 외과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원도 침의에 속하였다.

침의는 내의원에 속한 침의와 전의감(치종청)과 혜민서에 속한 침의로 나눌 수 있다. 침의는 지방 의원으로 침술에 뛰어난 자들을 서울로 불러 침의청에 소속시켰다.

내의원의 침의는 바로 침의청의 침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궁내에 있었기 때문에 내침의(內鍼醫)라고 불리게 되었다.

침의들이 소속되어 왕실의 질병치료를 담당하였던 침의청은 효종 2년(1651)에 설치되어 왕실의 질병치료를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침의청은 현종 14년(1673)에 설치된 의약동참청과 함께 조선 말기까지 내의원은 삼청체제로 운영되었다. 침의청에 소속된 침의들은 전의감이나 혜민서에 배치된 침의들과는 구분되었다.

침의는 조선시대 질병치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의 질병치료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수시로 상과 자급이 더해졌다. 따라서 침의들은 피와 고름을 보는 수술법 등으로 질병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내의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천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왕실에 대한 질병치료의 공으로 실직이 제수되는 등 관직으로는 내의들에 비해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전쟁으로 약재의 수급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약가(藥價) 또한 높아 약한 첩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 점에서 침의의 질병치료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전쟁이후 질병 치료에 많은 경험을 축적하여 경험방 의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방의 효시는 허임의 침구경험방이다. 조선후기는 경험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초청 강연-침술 의학의 장점과 과학적 연구 방향

수천년 임상 축적한 건강중심 의학

동양의 전통의학은 철학과 형이상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본 이론의 체계가 수 천 년 전에 정립되어 있고, 과학적 검증이 앞으로 오랫동안 다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비약해 있다. 동양 전통의학의 임상에서는 인문주의적 접근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환자가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침술은 경험의 의학이다. 수 천 년 동안 쌓아놓은 임상경험의 축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침술의 시술은 간편하고, 편리하며, 또 저렴하다. 침술치료에는 부작용이 적다. 약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생리적 인내력이 약한 노년층 환자들도 침술치료는 좋아한다. 침술치료는 '질병 중심의 의

학'이라기보다는 '건강 중심의 의학'이다. 침술로 마취도 가능하다. 마취약을 사용하지 않고 침만 몇 대 꽂아놓은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마취약을 쓸 수 없는 환자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최상의 선택이 되기도 한다.

동양의학의 여러 현상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침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향은 지금 △해부·조직학적 연구 △전기자장학적 연구(電氣 磁場學的 研究) △신진대사 내분비학적 연구 △심신의학적 연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세일(CHA의과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원장)



주제 발표② 침구경험방의 특징과 국내외 간행

간편하면서 효과적, 누구에게나 환영받아

침구경험방 베낀 책이 중국에서 현재로 유명



이상창(경운대 교수)

침구경험방은 1644년에 만들어졌다. 이후 조선의 침구학은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영향은 비단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까지 미쳤다. 일본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시기에 3번이나 간행되었다. 1차는 1725년 11월, 오복정서림(吳服町書林)에서 상중하 3권을 간행했고, 산천순암(山川淳菴)의 서문이 있으며, 현재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차는 1778년 랑화서림(浪華書林)에서 출판했다. 3차는 1807년 침구명감(鍼灸明鑑)이란 이름으로 간행됐다.

침구경험방이 중국에서는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일찍이 청나라 건륭년간에 간행된 침구집성(鍼灸集成)이라는 이름의 책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다. 이 책은 청나라 말 동치(同治) 광서년간(光緒年間)에도 다시금 간행되었으며 이 판본이 청나라 말기에 가장 유행했던 침구학 전문서가 됐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청나라 이전의 50여종 의학문헌을 인용수집, 집대성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침구집성이 채용한 문헌은 단지 3종. 허준의 동의보감, 허임의 침구경험방, 장경약의 유경도익(類經圖翼)이다.

그 중 침구경험방의 내용은 서문과 발문만 빼고 전문을 베껴, 전후의 순서만을 바꾸었을 뿐이므로 침구경험방의 또 다른 하나의 전본(傳本)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침구편'의 전문과 각 권의 '침구법'에 관한 모든 내용을 침구집성에 옮겨 담았다. 유경도익은 제6권에서 제8권의 내용 중 일부와 제4권의 금침(禁鍼)과 금구혈(禁灸穴), 제10권의 '기유유집'(奇愈類集) 부분을 인용하였다. 중국에서는 오랜 세월 침구경험방이 단행본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이처럼 면학당침구집성(勉學堂鍼灸集成) 속에서 전해지고 있다.

허임의 침구경험방은 경험에 중점을 두고,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이어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았다. 동시에 허임(許任)은 병기(病機)와 변증(辨證)을 매우 중시하였으므로, 이론방면에서도 또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책 본문은 잘 못 잡기 쉬운 혈을 골라 바로 잡는 와혈(訛穴)의 교정과 취혈방법(取穴方法)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혈(特定穴)과 아시혈(阿是穴)의 사용을 중시한 점, 침자(鍼刺)의 보사방법(補瀉方法), 구법(灸法)의 보사(補瀉) 및 그 사용방법, 자락방혈법(刺絡放血法)과 부항구(數缸灸)의 운용 및 각종 구체적 병증에 대한 변증, 치료경험 모두가 침구임상에서도 상당한 참고와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충분히 발굴하여 침구임상 치료수준을 제고시켜서,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